



인쇄인신년인사회 성황 ... 새도약 전기 다짐



‘2007년 인쇄인 신년인사회’가 대한인쇄문화협회(회장 홍우동) 대한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연합회(회장 최창근) 서울시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이사장 이충원) 공동 주최로 지난 1월 3일 오후 5시 서울 중구 쌍림동 소재 인쇄정보센터 7층 강당에서 개최됐다.

이날 인사회에는 송수근 문화관광부 문화미디어국장, 김용구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김종수 출판협동조합 이사장, 최태경 전자출판협회 회장, 박동립 한국스크린인쇄공업협회 회장, 민재기 대한인쇄문화협회 명예회장, 김직승 인쇄연합회 전회장, 곽득룡 인쇄연합회 전회장, 양철우 교학사 회장, 허철중 대한인쇄문화협회 전회장, 채복기 인쇄연합회 전회장, 고수곤 대한인쇄연구소 이사장, 심용선 인천인쇄정보조합 이사장, 구자빈 대전충남인쇄정보조합 이사장, 박의현 대구경북인쇄정보조합 이사장, 노길용 부산인쇄정보조합 이사장, 이철안 울산

경남인쇄정보조합 이사장, 이명원 강원인쇄정보조합 이사장, 박래수 제일인쇄사업조합 이사장 등 내외 귀빈과 인쇄인 300여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루었다.

이날 인사회는 홍우동 인협 회장, 김용구 회장, 최창근 인쇄연합회 회장, 이충원 서울조합 이사장의 인사말에 이어 시루떡 절단, 민재기 인협 명예회장의 건배 제의로 공식 행사를 마친 뒤 식사를 하며 새해 설계와 덕담을 나누는 시간으로 진행됐다.

홍우동 대한인쇄문화협회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2006년의 인쇄업계는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은 어려움과 근심걱정이 많았던 해였다”고 회고하고 “이러한 난관들을 극복하기 위해 협회에서는 올해에 국회에 상정되어 있는 인쇄문화산업진흥법의 조속한 제정을 위해



매진할 것이며 인쇄의 위상제고, 수출증대, 국제교류, 단체수의계약 제도 폐지에 따른 신경영모델 연구, 인쇄물품질인증 연구, 신규인쇄물 창출을 위한 사업에도 전력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최창근 인쇄연합회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난해에는 우리 인쇄 뿐만 아니라 경기전반의 침체로 고난의 한해를 보냈다"면서 "단체수의계약제도가 폐지된 만큼 이제 우리는 새로운 환경에 하루빨리 적응하고 미래를 개척하는 일이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역설했다. 최 회장은 또 "우리 연합회는 올해에 환경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인쇄인 및 조합원과 기존조합의 미래를 위해 다양한 연구와 대정부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라면서 "이를 위해서는 조합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동참이 필요하며, 힘이 한 곳으로 모아진다면 오늘의 위기극복은 물론 인쇄의 미래가 결코 어둡지만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충원 서울인쇄정보조합 이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난해 우리 업계는 인쇄문화산업진흥법 제정 활동, 단체수의계약제도 폐지 3년 유예 쟁기대회 등 다사다난했지만, 서울인쇄대상 및 인쇄문화축제를 통해 인쇄문화인과 시민이 하나 된 축제의 장을 마련하였고, 서울시의 지원으로 인력난 해소를 위해 인력지원 활성화 사업을 실시하였으며, 해외 판로개척을 위해 시장개척단을 파견하는 등 다각적인 발전방향 모색으로 상당한 실적과 성과를 거둔 한 해이기도 했다"면서 "인쇄문화인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에 힘입어 이뤄낸 성과인 만큼 앞으로도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업계의 권익보호와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하여 업계의 소망이 이뤄지는 한 해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인쇄문화산업진흥법을 대표 발의한 김재운 열린우리당 국회의원은 "국회의 중요한 행사와 겹쳐 인쇄인 신년인사회에 참석하지 못해 죄송하다며 올해에는 인쇄문화산업진흥법이 국회에서 반듯이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는 메시지를 보내왔다. ☞



인사말을 하고 있는 홍우동·김용구·최창근 회장, 이충원 이사장과 건배제를 하고 있는 민재기 인협 명예회장 (사진위에서부터)